



파워 인터뷰



김나옥 회장

## 21세기 뇌과학, 교육 융합 시대 “나와 민족과 인류를 위해 공부한다”

청소년 멘탈헬스 인성교육협회 김나옥 회장

글 · 사진 백은하 편집국장

“저는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정말 행복한가? 질문합니다. 뇌 교육은 이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변입니다. 뇌교육을 하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21세기를 대표하는 키워드인 ‘뇌’가 과학, 건강 분야를 넘어 교육 분야의 폐려다임을 바꾸고 있다. 마음이 뇌의 작용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뇌과학적 연구가 이루어짐에 따라 인간 행동을 규정하는 생각과 사고 인성함양 등 교육가치의 핵심가치에 대한 접근방식이 달라지고 있다.

한국형 인성교육 전문단체 ‘청소년 멘탈헬스 인성교육협회 (이하 청인협)’가 지난 2013년 7월 서울대학교에서 창립식을 가졌다. 창립식에는 이수성 전 국무총리와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 전세일 원장 등이 참석했다.

‘멘탈 헬스 (Mental Health)’를 언급하며 국민을 대상으로 ‘멘탈헬스 특별강연회’를 진행했던 이승현 총장 (글로벌사이버대)도 기조연설을 했다. 국제뇌교육협회 김나옥 부회장은 이날 창립식에서 청인협의 초대 회장으로 추대됐다.

김나옥 회장은 취임사에서 “청인협 창립을 기점으로 흥익인간의 정신을 품은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나와 민족과 인류를 사랑하는 지구시민으로서, 저마다의 두뇌 잠재성을 깨우고 활용하는 뇌의 주인으로써, 건강하고 밝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장애학생의 인권보호 정책

김나옥 ‘청인협’ 회장은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학과를 졸업하고 교사로 시작해 2013년 12월 교육부 교육연구관으로 공직을 마감하기까지 28년 동안 교육현장과 중앙부처인 교육부 공무원으로 일했다. 교육부를 퇴직하기 전 마지막으로 맡은 업무가 학교 현장에서 왕따나 폭력의 희생이 되기 쉬운 장애학생의 인권보호 정책이었다.

김회장은 “평생 화두가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꿈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을까?”였다고 말한다.

김회장이 뇌교육을 처음 접한 것은 1999년 미국 American University에서 특수교육 석사과정을 공부할 때였다. 공부가 너무 힘들어 뜸이 많이 악해졌는데, 미국에 진출해있는





청소년 멘탈 헬스 인성교육협회 창립식

'브레인명상센터'를 알게 됐다. 김회장은 '브레인명상센터'에서 수련을 하면서 본인의 몸과 마음, 그리고 학습장애를 겪고 있는 학생들이 변화하는 것을 직접 체험했다.

학습장에 학생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데 난독증에 숫자개념도 없었다. 그런데 뇌교육을 받으면서 자신감이 많이 생기고 밝아졌다. 2000년 뇌교육 컨퍼런스에서 이승현 글로벌사이버대학교 총장의 강연을 듣게 되었다. 그는 문제가 생기면 자신의 뇌에게 질문을 하고, 뇌를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본인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했다고 한다.

한국에 돌아와 단국대에서 '특수교육 시각장애인들의 뇌교육 신체 변화'로 교육학 박사를 취득했다. 2007년에 이승현 총장을 만났다. 뇌교육으로 청소년들에게 바른 인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2013년 12월 교육공무원을 명예퇴직하고 국제뇌교육협회 부원장으로 취임했다.

### 인성의 핵심은 뇌

청소년 인성의 핵심은 뇌에 있다. 뇌교육은 인성교육 내지 창의성 교육이다. 학생들에게 뇌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면 아이들의 생활에 주도적인 변화가 생긴다. 학교 부적응 학생들이 이틀간의 캠프식 프로그램에서 놀라운 집중도를 보였고, 실제 아이들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명상은 생각을 멈추는 것이다. 생각이 멈추면 증립 상태가

된다. 영점 상태로 돌아간다. 뇌가 영점 상태가 되면 스트레스에서 자유롭게 되고 자연스럽게 자신의 비전과 꿈, 희망을 키우면서 흥의의 꿈을 갖게 되고 마음이 커지고 넓어진다.

한국의 뇌교육은 1990년 뇌과학연구원이 설립되면서 과학적인 연구와 자료가 축적되기 시작했고,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에 '뇌교육학과' 석·박사 과정이 개설됐고, 글로벌사이버대학교에 '뇌교육융합학부'가 개설돼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다.

뇌교육의 태동은 인류과학의 정점이라는 21세기 뇌과학의 발달에 따른 뇌융합시대의 도래, 그 과정에서 인간의 뇌에 대한 이해가 높아진 시대적 흐름 속에서 존재한다. 뇌기반학습, 뇌기반교육, 신경교육 등 뇌과학 기반의 다양



자석을 이용한 뇌교육





학생들의 뇌교육 현장

한 학문적 융합이 이루어져오고 있다.

한국에서 가장 앞서 정립된 뇌교육은 인간 뇌에 대한 깊은 탐구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 뇌철학, 뇌운영 체계에 대한 핵심원리, 체험적 교육방법론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서구의 뇌기반교육과는 다른 차별성과 방향성을 보여준다.

####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정말 행복한가?

김나옥 회장은 “저는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정말 행복한가? 질문합니다. 뇌교육은 이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변입니다. 뇌교육을 하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멘탈 헬스 (Mental Health) 상태일 때 청소년들이 행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회장은 자기 조절력, 소통 능력이 있어야 현재 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고,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뇌교육 프로그램이 학교 현장에서 적용돼 인성 교육, 창의성 함양, 성적 향상 등 많은 긍정적인 사례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현재 1500여 학교에서 뇌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빠르게 보급되고 있습니다.”

학교에 적용된 뇌교육 기본프로그램은 〈몸과 뇌를 깨우는 뇌체조〉 〈뇌파를 안정시키는 뇌파진동 명상〉 〈집중력을 높이는 자기명상〉 〈두뇌우호적인 분위기 만들기 : 사랑주기 (러브핸즈)〉 〈뇌력을 키우는 HSP Gym〉 〈홍익의 꿈 정립〉 등이다.

김나옥 회장은 앞으로 뇌교육은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으로 국내 뿐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도 청소년 멘탈 헬스 증진 프로그램으로써 그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